

이윤식 작가님 인터뷰

소준철(사회학 연구자)

1. 소설가, 항공역사가로서의 생애

- a. 건국대학교에서 법학,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음에도, 소설가가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. (문학사상에서 「거미」로 등단하셨는데요.)
- b. 1996년 6월 『신동아』에 기고한 「비행 선각자 20인의 삶과 죽음 : 날자, 날자. 죽는 날까지 하늘을 날아보자!」가 작가님께서 항공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낸 첫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. (1991년 처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언급도 본 적이 있습니다.) 어떤 계기로 어떻게 자료를 모으셨나요?
- c. 등단 후, 일제강점기 항공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?
- d. 이후, ‘항공과 함께 하는’ 항공역사가가 된 특별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.
- e. 도산이 쓴 일기 한 대목을 빌려 『비행기로 민심을 격발하고 장래 국내의 대폭발을 일으키기 위함이라』(2003)를 출간하셨습니다. 『신동아』의 글로 알고 있는데요, 굳이 (소설이 아닌) 역사서를 출판한 계기가 있나요?
- f. 1990년대,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은 시대에 자료를 찾는 방법은 어떠했습니까?

- g.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됩니다. 항공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습득하셨나요. 당시 만났던 항공인은 어떤 분이 계신지요?

2. 항공역사가로서의 활동

- a. 공군의 기원을 다룬 『신화의 시간』 (2012)은 공군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공군 창군사를 정리한 중요한 책입니다.
- b. 『창석 최용덕의 생애와 사상』 (2008)은 어떤 의미인가요.
- c. 『히말라야의 별』 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. 초기에 참조하셨던 신용인의 원고는 어떤 내용이었고, 작가님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?
- i. 이 작업은 항공독립운동사라는 역사를 기초로 항공역사문학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. 작가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인지요.
- d. 한국비행역사연구회(한비연)을 주도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. 한비연의 활동과 운명을 소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3. 공군지 『코메트』 에 대한 접근과 정리는 작가님의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

- a. 『코메트』 (공군지 전신)를 발굴하게 된 계기를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?

- b. 한국전쟁기 공군지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? 또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지요.
- c. 과거 공군지에 실린 글 가운데 흥미로운 글을 소개해주세요.
- d. 현재의 『공군』 지에 2006년부터 13년간 글을 쓰셨습니다. 어떤 글을 실으셨는지, 또 기억에 남는 글이 무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
- e. 특히 ‘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’은 항공역사가이며 문학가로서의 공력이 집대성된 연재로 보입니다.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.
- f. 『오래된 미래』 (2018)는 엄청난 공력이 들어간 작업으로 이해됩니다. 『코메트』의 집필의도와 의미를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4. 국립항공박물관에 기증한 유물

- a. 기증한 유물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. 한국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.
- b. 기증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요.
- c. 항공박물관에 온 분들께서 유물을 살펴볼 때 유의해야 하는 건 무얼까요.

5. 회고

- a. 작가님께, ‘항공’, ‘비행기’, ‘비행’, ‘비행사’ 등은 어떤 의미입니까.
- b. 항공역사와 함께 한 30여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요.
- c. 최근 『꽃은 저서 꽃을 피운다』 등의 문학가로의 여정을 떠나시려는 듯 보입니다.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신지요?

